

유리창 X표 대신 창문과 창틀 테이프로 고정해야

초강력 태풍 '힌남노' 초비상...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처 요령 보니

가공할 위력을 지닌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6일 오전 경남 통영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 상륙하는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태풍 상륙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번 태풍의 영향 반경이 워낙 넓다는 점에서 광주·전남도 강풍 및 폭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 상륙 시점을 전후로 전남 남해안의 경우 초당 최대 풍속이 40~60m에 이를 정도로 강풍이 불고, 광주와 전남지역에 곳에 따라 최대 300~400mm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풍에 날릴 물건 치우고, 창문 흔들리지 않도록 = 4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태풍 등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창문 사이 틈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강풍이 불 때는 유리창보다는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흔히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 신문지나 테이프로 창문에 X자로 붙이는데 그보다는 창문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것이다. 테이프 외에도 우유갑과 종이 박스 조각을 창문과 창틀에 넣어 흔들림을 막는 것도 방법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수년 전 초속 50m의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을 한 결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발생했다. 유리보다는 창틀(sash)의 성능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다만 유리창 파손 시 파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창문에 비산 방지를 안전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다.

간판이나 교회 철탑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파손 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취약 부분 사전 보강
막힌 배수로 뚫고 차량 고지대로
상습침수·산사태 지역 피하고
강풍·폭우 몰아칠 땐 외출 자제
정전 대비 랜턴·양초 미리 준비

므로 강풍 발생 전 반드시 고정하거나 보강해야 한다.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모든 물건은 강풍 발생 전 제거하거나 실내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한다. 해안지역에서는 파도가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면 안 된다. 강풍 발생 전 시·군·구청에 연락해 집 근처의 죽은 나무나 가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취약 부분을 사전에 보강하고, 끈을 이용해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풍에 노출되는 전선들은 누전이나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연결 부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체해야 한다.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미리 결박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막힌 배수로 뚫고 저지대 차량 옮겨야 =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각 가정에선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4일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치고 있다.

/연합뉴스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농경지는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한다.

갑작스러운 대피에 대비해 가정에선 비상용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기상정보 등 뉴스를 잘 살펴야 한다. 급한

경우가 아니면 강풍이나 폭우가 몰아칠 때엔 외출을 삼가야 한다.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등산 등산로 통제...학교 휴업·단축 수업 권고

광주·전남 태풍 '힌남노' 대비 만전

병무청 병역 판정검사 연기

코레일 열차 운행 중지도 검토

시·도 피해 위험지역 사전 점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학교 휴업 및 단축 수업을 권고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고,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 등산로 통제에 들어가는 등 태풍 북상을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줄이기 위해 5~7일 3일 동안 단축수업, 원격수업 전환, 재량휴업 등을 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고 학사일정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일선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 등

학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단축수업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 및 직속기관에게도 학교 시설, 학생 수련시설, 등하굣길 위험 요소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4일 오후부터 무등산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다. 통제된 탐방로는 광주, 화순, 담양 등 지역의 총 63개 길이다. 통제된 탐방로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라도 안전점검을 거친 후 개방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6일까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 대응 중이다. 공사는 시간당 강우량이 50mm 이상이거나 풍속이 초속 30m 이상일 경우 열차 운행 속도를 낮추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전남병무청은 5~6일 이들 동안 병역판정검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병역 의무자 중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을 검사·입영일자로부터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목포·완도·여수해군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해군은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등 위험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가 순찰을 확대하며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또 항·포구 내 장기 계류 중인 선박과 고위험 선박 사고에 대비해 비상연락체제도 점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급경사지, 배수로, 하천진로로, 하수도 유입구, 교통안전시설물, 공사현장 등 3만 2441개소 피해 위험 지역 사전 점검을 했다. 전남도는 4일 22개 시·군 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비닐하우스와 수산 증·양식시설 고정·결박, 소형 어선 육지 인양 및 중형어선 피항, 농수산물 조기 출하 지도,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사전예고 등 현장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려인마을 품은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지정

외국인 많고 범죄도 많아

광주경찰청 통합적 관리

광주경찰청은 5일부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외사안전구역'은 전국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 가운데 외국인 수, 외국인 피의자 수, 시·도경찰청 추천 등을 종합해 외사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경찰이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신규 지정되는 광산구 월곡동은 외국인 비율이 14.4%로 광산구 전체 외국인 비율 2.9%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구역이다. 외국인 범죄도 전국 평균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력 집중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외사안전구역 지정에 따라 이를 전담·관리할 '외사안전협력관'을 배치하고, 경찰·관계기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사 치안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치안정책 여론을 수렴하고 내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존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범대(30명)를 확대하고, 내외국인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캠페인 등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등 치안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생활 안전·경비·교통 등 전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 치안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외국인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CCTV 등 방범시설·장비 보완 등 치안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월곡동은 고려인 주민 5100여 명(고려인마을 자체 추산 고려인 수는 7000여명)이 정착해 생활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h3>당진(신축)원룸매매</h3>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h3>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 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td> </tr> <tr> <td></td> <td>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td> </tr> <tr> <td></td> <td>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td> </tr> <tr> <td></td> <td>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td> </tr> <tr> <td></td> <td>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td> </tr> <tr> <td></td> <td>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 </tr> <tr> <td>전남</td> <td>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8/03)</td> </tr> <tr> <td></td> <td>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td> </tr> <tr> <td></td>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td> </tr> <tr> <td></td> <td>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 </tr> <tr> <td>시외</td> <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td> </tr> <tr> <td></td> <td>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p align="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